

작품 내용

제 목	지나친 손자국 위에는
내 용	몇몇 이름들은 지워지는 순간보다도, 다른 이름으로 덧칠되는 순간이 더 아파 보이곤 한단다. 너도 언젠가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될지는 모르겠구나. 한 때 가장 오래 바라보았던 문장을 다시 만나는 일은, 어머니가 떠난 집에서 식지 않은 밥상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한거야.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는 떠났는데 밥은 아직 따뜻하고, 의자는 그대로 놓여있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로 식탁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으니. 모든 것은 그대로지만 주인만 없는 집이 있단다. 벽에는 마지막으로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아직 늘어붙어있고, 창가에 걸린 햇빛은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지. 그 가여운 햇살을 따라 문패를 바라보렴. 낯선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을 거야. 손끝으로 문장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새벽의 한숨, 미지근한 커피, 계속 지우다 닳아 찢어진 종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애써 부정하며 붙잡고 있었던 마음까지 하나씩 묻어나올 것만 같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긴 문장의 끝에는 처음부터 그곳의 주인이라 주장하는 낯선 이름. 그 이름 하나만 남아있단다. 빼앗긴 것이 이야기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별것 아니라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만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을 거야. 모든 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 거란다. 그 사람도 알게 되었겠지. 사라진 것은 종이도, 문장도, 그림도 아니었다는 것을. 사라진 건 무엇일까. 그 안에 접어 넣어두었던 시간이 아닐까? 새벽은 한 장씩 찢겨나갔고, 망설임은 바닥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수없이 버려진 문장들은 저 아래 묻혀버렸겠지. 완성된 작품 하나를 세상에 내놓으려, 수많은 미완성의 밤들은 제 몸을 내어주었을 텐데, 사람들은 마지막에 피어난 꽃만 바라보며 그것이 저절로 피어난 줄 알았다더라. 너는 꽃이 피었다고 해서 뿌리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니. 흙 속에서 얼마나 오래 돌을 밀어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 냈는지는 꽃잎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으니까. 꽃은 여전히 피어있는데, 그 꽃을 심었던 손만 흙 속에서 조금씩 지워져 가는 거야. 더 서러웠던 건 세상이 너무 조용했다는 거야. 무언가가 부서졌다면 적어도 깨지는 소리 하나쯤은 남아야 할 텐데, 이름 하나가 사라지는 데에는 우리 한 조각 떨어지는 소리조차 필요하지 않았더라. 박수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을 거야. 칭찬은 눈처럼 내려앉고 사람들의 말은 따뜻한 비처럼 작품 위로 흘러내리는 와중에, 그 아래 묻힌 이름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을 거야. 바깥의 나무에는 새잎이 돋는데 혼자 남은 방의 창문에는 계속 서리가 켜올 테고, 세상은 봄을 맞았는데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겨울이 끝나지 않았을 테야. 모두가 꽃이 피었다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정작 꽃을 심었던 사람에게는 오래된 장례식처럼 남아버리는 거지. 참 이상한 일이란다. 축하받아야 할 날이 가장 조용히 울고 싶은 날이 되었으니 말이야.

그 다음부터 빈 화면은 더 이상 하얀 종이가 아니었을 거야.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발 같았을 테고, 그 위에 첫 발자국 하나를 남기는 일조차 오래 망설여지는 밤 같았겠지. 한 문장을 쓰려하면, 손끝에 묻어 있는 기억이 먼저 떨리고, 또 하나의 문장을 건네면 또 다른 이름이 그것을 가져갈까 두려워지고, 다시 시간을 심으면 누군가 뿌리째 뽑아 자신의 화분에 옮겨심을까, 하고 겁이 났을 테니까. 쓰이지 않은 문장들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썩어갔단다. 꽃이 되지 못한 씨앗처럼. 계절을 만나지 못한 새싹처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은 가슴 한구석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새로운 문장이 태어나려 할 때마다 위에 조용한 그림자를 드리웠겠지.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던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침묵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도 참 슬픈 일이란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지. 이름을 빼앗겨도 처음 태어난 순간까지 빼앗기지 않는 걸까.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던, 처음 그 문장이 태어났던 순간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끝까지 살아남듯이, 처음의 시간은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겠지. 그것을 완전히 가져갈 수는 없었을 거야. 다만 그 불씨를 품고 있던 손이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시달려서, 이제는 온기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가는 것, 그것뿐이었겠지. 불이 있다는 사실보다, 혹시 꺼질까 두려워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새벽도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 혹시 언젠가 네가 만든 무언가가 다른 이름 아래 놓이는 날이 오거든, 너무 오래 그 이름만 바라보지는 말거라. 쉽지는 않겠지. 아마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될 거야. 저 이름만 없었다면, 저 이름 대신 처음의 이름이 적혀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될 테니까. 그래도. 문패는 바뀔 수 있고, 꽃의 이름도 바뀔 수 있어. 누군가는 정원 전체를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처음 그 씨앗을 흙에 묻었던 손까지 바꿀 수는 없단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흘린 한숨. 몇 번이고 지웠던 문장. 끝내 포기하지 못했던 마음. 모두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그 사실만으로 위로받기에는 마음이 너무 오래 젖어버린 날도 있겠지.

가장 슬픈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닐 거야.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것. 한때 품에 안고 있던 새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밤새 가꾸었던 정원이 어느 날 낯선 문패 아래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홀로 서서 아무도 모르게 흙에 남은 손자국 하나를 내려다보는 것. 너무 작아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 깊어서 비가 몇 번이나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손자국. 이것만은 기억해두렴. 세상은 때때로 꽃의 이름을 훔쳐 갈 수 있어도 그 꽃이 처음 피어나기까지 흘러간 계절까지 훔쳐 갈 수는 없단다. 이름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어도 그 이름을 만들기 위해 흘려보낸 시간만큼은 끝내 누구의 이름으로도 불릴 수 없으니까. 언젠가 네가 무

언가를 잃고 돌아오는 날이 오거든 너무 오래 뒤를 돌아보지는 말거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돌아보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흠 위에 아직 네 손자국이 남아있을 테니까. 꽃은 다른 이름으로 피어있을지 몰라도, 그 계절을 지나온 사람까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